



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바로알기

2019년 8월 23일부터
본격 시행된
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해
아아볼까요?



산란일자 표시는 왜 하게 됐나요?

산란일자 표시제는 **달걀의 안전성을 확보**하고,
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.



산란일자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?

- ✓ 산란일 8월 23일,
- ✓ M3FDS 농장,
- ✓ 평사 환경에서 얻은 달걀

0823 M3FDS 2

0823 M3FDS 2

산란일자 4자리

0823

+

생산자고유번호 5자리

M3FDS

+

사육환경번호 1자리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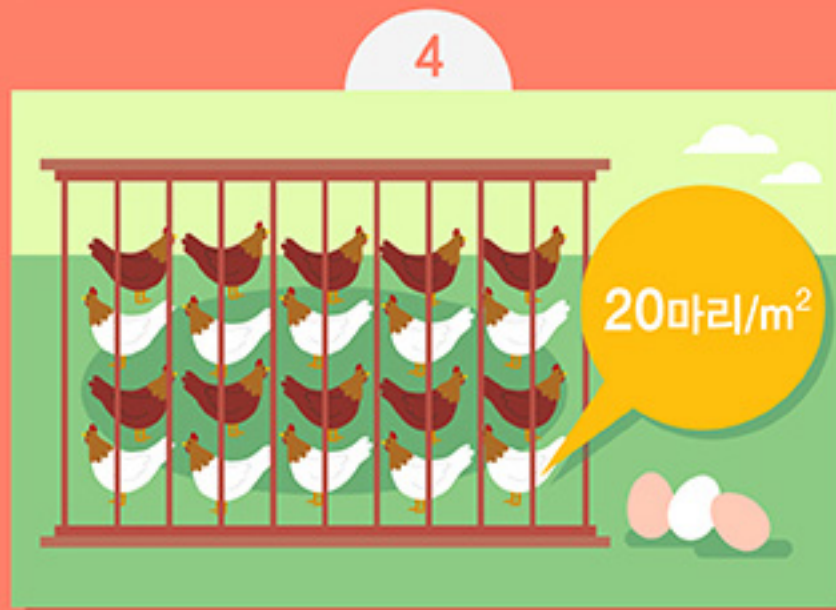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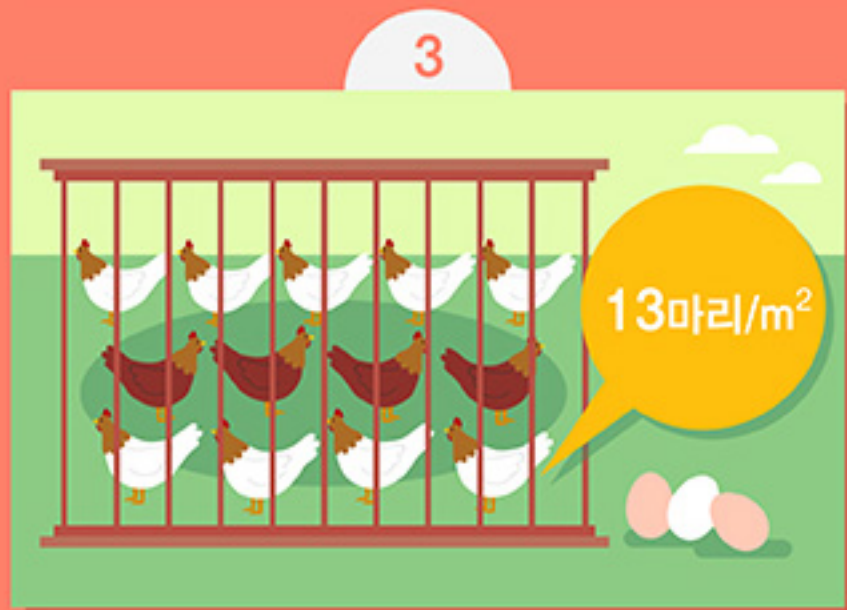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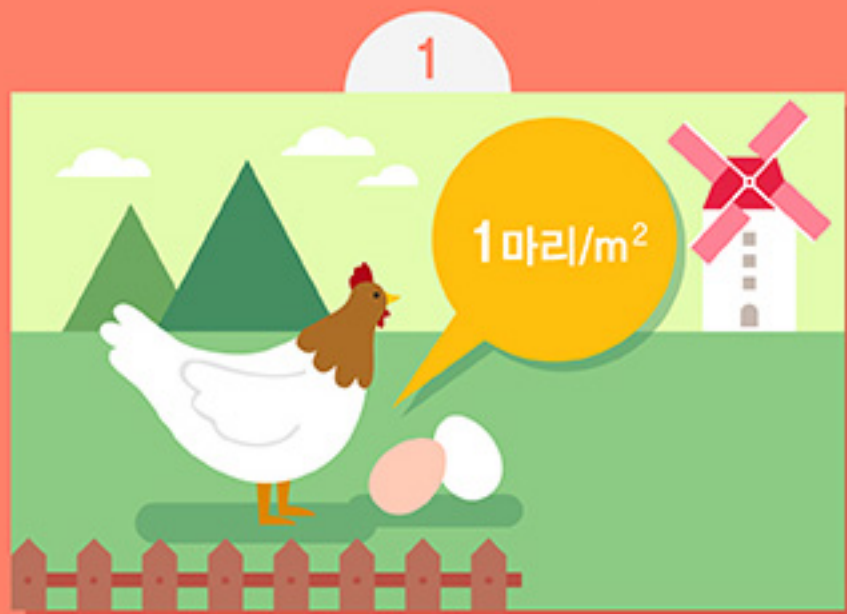
달걀 껍데기에 **산란일자 4자리**+**생산자고유번호 5자리**+**사육환경번호 1자리**
순서로 총 10자리가 식용색소(식품첨가물)를 사용하여 표시됩니다.

*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농장고유번호 :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증에 기재된 번호
(식품안전나라 > 위해·예방 > 달걀농장정보 에서 확인 가능)

* 사육환경번호 : 1 방사(방목장에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 → 1마리/m²)
2 평사(케이지·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 → 9마리/m²)
3 개선케이지(0.075m²/마리 → 13마리/m²)
4 기존케이지(0.075m²/마리 → 20마리/m²)

0823 M3FDS 2
산란일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



산란일자 표시만 보면 신선한 달걀을 살 수 있는 건가요?



적정 온도에서 보관·유통된 달걀의 경우,
산란일자가 며칠 지났어도
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으므로
유통기한 이내의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
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